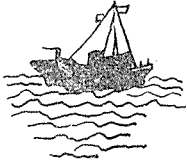


世界一周記



張 一 世
(國立中央圖書館 司書課長)

나는 지난 8월 초부터 9월 중순에 이르는, 약 1개월 20일간에 걸쳐서 세계를 一周하는 기회를 가졌다. 미국은 그곳 유타주 솔트 레이크 시티에 위치하고 있는 계보학회에서의 초청에 의한 것이고, 구라파는 영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방문한 것이다.

이번 여행은 비록 기간은 매우 짧았으나, 대단히 보람있고 매우 유익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흥미있는 여행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어디까지나 전문적 사서의 한 사람으로서 東西간의 도서관을 비교해 보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는 하였지만, 여러 나라의 文物을 통한 본인 자신의 식견을 넓히는 것 또한 나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여러 외국 도서관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것은 차후 참고자료의 도록을 기다려 쓰기로 하겠지만, 이 글은 세계를 일주하는 동안 한 도서관 사서가 느낀 여러 가지 소감을 우리 동료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에서 미국으로

미국에는 그곳 계보학회 주최인 “기록류에 관한 세계회의”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회의는 미국 날짜로 8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계보학회가 소재하고 있는 솔트 레이크 시티에서 개최된다.

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여야 할 여러가지 업무 때문에 회의에 겨우 참석할 수 있도록 서울을 출발할 것을 미리 작정하였다. 동양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하여 太平洋을 횡단할 때 대체로 東經 180度を 중심하여 있는 「국제 날짜 변경선」으로 인하여 하루를 얻게 되어 있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떠났었다.

나는 8월 4일 낮 12시 45분발 JAL 켈트기인 보잉 707로 서울을 떠났다. 날씨는 쾌청하고 바람 한점 없는 참으로 좋은 날씨였다. 1958년 9월 1일 미국에서부터 귀국한 후 꼭 11년만인 재 방문이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흥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출국 수속이 8월 2일인 토요일에야 겨우 끝나고 보니 사실 마음속으로 불쾌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외무부 여권과에서의 담당직원의 불손한 태도, 비협조적인 처

사는 나쁜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여러 손님들의 이맛살을 찌프리게 했고, 이래서야 어디 외국엘 갈 수 있나 하는 탄성마저도 나오게 하는 것이었다.

비행장에서 여러 도서관 직원과 친척들의 배웅을 받았을 때 비로서 내가 지금 외국으로 떠나고 있구나 하는 실감을 느꼈다.

동경까지는 불과 두시간 밖에 안걸린다. 오후 2시 45분에 동경에 도착한 후 나는 미국 로스안젤스로 향하는 펜 아메리카 비행기를 탈때까지 약 세시간 여유가 있었으므로, 지난 4월부터 동경 경응대학 의대 부속도서관에서 실습훈련을 받고 있는 경북대학 의대 부속도서관 고성수 씨를 비행장에서 만나기로 이내 편지왕태가 있었으나 워낙 비행장이 넓고해서 서로 만나지 못했다가 겨우 출발시간 한시간 전에야 만날 수 있었다. 서로 반가히 몇마디 나누고 다시 귀국할 때 만날것을 약속하고 나서 비행기 타람에 올랐다.

동경서 로스안젤스 까지 펜 아메리카는 논스톱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10년전 미국 갈때, 그리고 돌아올때만 하더라도 프로펠라 엔진인 펜 아메리카 비행기로서의 20시간 이상 걸렸던 것이 이번 켈트기로는 겨우 10시간이면 미국땅에 도착한다. 동경에서 로스안젤스로 가는 불과 11시간 동안 비행기 속에서 하룻밤을 새는 것이지만 그 동안 시간은 열시간이나 차이가 생긴다. 즉 동경시간으로 5시반에 출발, 로스안젤스에 이튿날 낮 그곳시간 12시에 도착하므로 시간 수로는 19시간 비행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10시간 밖에 비행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동경시간으로는 이튿날 새벽 3시경이지만 로스안젤스 시간은 낮 12시다. 말하자면 비행기가 해를 쫓아 가는 관계로 세상에서 가장 짧은 밤을 가진다. 캄캄해졌구나 하자마자 곧 동녘이 흰하게 트인다. 따라서 잠을 제대로 못자고 날이 밝으므로 몸이 고단하다. 도착하는 12시는 한국시간으로는 새벽 3시경이기 때문이다.

불과 10여년 동안에 과학이 그렇게 발달한 것이다. 세계는 자꾸 좁아지고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문물교환도 따라서 더욱 잦고 활발해지고 양적으로도 많아진다.

미국에서의 입국 수속은 간단했다. 우리 나라 공항에서처럼 짐작을 뒀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미리 연락된 이화여대 도서관과 출신인 노진순 양을 만나기로 되어 있다. 미국에 온지 벌써 3년이나 되는 노양을 비행장 르비에서 만났을 땐 참으로 반가웠다. 이 국명에서 잘 아는 고국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흥분을 가져다 준다.

영화제작소가 많고 특히 우리들에게 할리우드로서 잘 알려진 이곳은 그전에 왔을때 약 한주일 있었던 곳이

라 낮이 익은 곳이기도 하나 비행기에서 보는 로스앤젤스는 그동안 고층건물이 많이 늘었고, 고급주택에 마련된 개인용 풀이 특히 눈에 뜨인다. 서울과 같이 인구 팽창이 심한 이곳은 아열대지방의 기후로서 한참 더운 날씨였으나 비행장 밖은 차, 차, 차로 붐비고 있다. 끝 없이 늘어선 차, 한 없이 달려가는 차,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차가 많은 나라임은 누구나도 알지만, 그리고 미국에 일년이나 있었던 나였지만 새삼스러이 많은 차량, 질주하는 차의 홍수에 정신이 아찔한 정도이다.

노진순 양 클라스메이트인 미국 여자 미스 케이 양과 셋이서 내가 오후 5시에 목적지인 솔트레이크 시티로 떠날 때까지 사이에 자동차로 로스앤젤스에 있는 캘리포니아대학(UCLA) 캠퍼스와 남가주대학 캠퍼스를 보기로 했다.

UCLA의 캠퍼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어느 대학 건물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캠퍼스가 넓고 빌딩으로 된 교사가 많다. 캠퍼스 안에 주차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내고도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때문에 절절 매야 한다. 몇 바퀴 여기저기 캠퍼스 안을 도는 동안 말로나 사진으로만 들고 보던 히피족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뜨인다. 아무렇게나 걸어난 수염, 웃도리를 전연 안 입거나 더러운 린닝샤쓰만 걸친 학생들, 맨발을 좋아하는 그들, 히피족 남녀 학생들이 캠퍼스 속을 서로 허리를 겨안고 아무렇게나 걸어다니는 진풍경…… 불과 1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에서 볼수 있는 부호의 나라 미국, 횡행의 나라 미국에서 속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인 히피족의 생태에 나도 그저 멍하니 쳐다 볼 수 밖에 없었다. 미국 사람들도 히피족에 대한 해결책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태도인것을 보면 앞으로 여리가 지르 문제점을 가져 올것 같기도 하다.

들은 바에 의하면 히피족에도 상당한 종류가 많다고 한다. 그 중에는 상당히 건실한 히피족이 있어서 현 사회제도의 모순점을 비판하고, 루소가 웨친바와 같이 지나친 그리고 경박한 문명을 배격하면서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순수한 자연주의파가 매우 강력한 영향을 사회에 던지고 있다고도 한다. 아물든 내 눈에 비친 히피족은, 내가 잘못 본 것인지는 모르나 너무도 풍부한 물자, 너무도 만족스러운 향락,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서 오는 불만족……모순된 이야기 같으나 너무도 만족스러운 것에 불만족을 느끼는 데서 오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나의 견해에 대하여는 그곳 미국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공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히 지나친 이야기는 아닌것 같다.

그러한 풍경을 가진 캠퍼스이면서도 여기 저기서 새

교사의 증축이 한창인가 하면 가장 현대적인 도서관이 불쑥 불쑥 솟고 있는 것은 매우 부러운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쭈쭈 뻗은 넓은 고속도로와 무한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수많은 차를 보면 약동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미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목적지인 솔트레이크 시티에 비행기가 도착한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인 7시반경이었다. 국제 날자 변경선을 넘어 왔으므로 날자는 아직 8월 4일이다.

모든 미국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만큼 소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소금으로된 호수가 있는 곳이어서 그 뜻으로 영어로 솔트레이크 시티라 했다는 이 도시는 그 호수 바로 옆에 있다. 저녁 햇빛이 반짝이는 그 호수를 내려다 보며 그곳 비행장에 도착한 것이다. 이렇게 높은 고원지대에 이런 호수가 거의 사막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계보학회 조사 연구원으로서 우리 나라에도 두차례 왔다가 온튼씨가 마중 나왔다. 그 학회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족보의 마이크로 필름 촬영계획으로 나와 여러번 만나 이야기한바 있어서 거의 친숙할 정도이다. 그의 안내로 유타 호텔에 투숙했다. 그곳에서 먼저 와 계신 한국 대표인 국회도서관의 강주진 관장님과 전북대학교 송준호 교수를 반갑게 만났것은 물론이다.

일년에 불과 5~6인치 밖에 비가 오지 않는 이곳은 거의가 3000 피트 이상인 고원지대이며, 거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 계속된다. 거의 不毛의 사막인 이유가 그 때문이다. 8월의 낮 햇빛은 질식할 정도로 따갑고 화씨 93~4도를 오르 내리지만 해만 서산에 지면 습기 없는 곳이라 꽤 선선하다. 이런 곳에 인구 20만이 넘는 대 도시를 건설하고 거의 100마일이나 떨어져 흐르고 있는 콜로라도강으로 부터 수도물을 끌어 쓰면서도 제한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을 미국에서도 개척자로 자처하고 있고 상당히 자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뜨일 정도이다. 그 개척자들은 그곳에 물론교 본부를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솔트레이크 시티의 인구뿐만 아니라 유타 주의 인구 7할 이상이 물론교도단다.

「기록류에 관한 세계회의」는 물론교 재단에 의하여 유지되는 계보학회의 주최하에 열렸다. 47개국으로부터 온 260명의 국가대표외에 이 회의에 참가코자 등록한 인원수는 무려 7,000명이나 넘는 많은 수이다.

이 회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보 10월호에 게재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거니와, 회의가 개최된 솔트레이크 시티 중전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한꺼번에 3~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건

물이다.

한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이 모인 세계적인 회의에서 한국측의 우수성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와 반면에 소련에서는 족보학의 가치조차 전연 부인함으로써 그곳에 모인 7,000이 넘는 참가자의 조소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대조적이었는데, 소련의 이와 같은 태도는 그네들이 그들 선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좋은 예라고도 할 수 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강주진 관장님과 헤어져서 따로 따로 쏘트레이크 씨티를 비행기로 출발, 나는 시카고로 거쳐 위스콘신 주로 향한 것이다.

시카고에서는 어떻게 밀려드는 비행기가 많은지 그곳 상공에서 착륙하는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한시간반 동안이나 머물렀다.

가는 비행장마다 비행장 확장이 한창이고 이착륙하는 비행기는 시카고나 뉴욕 같은 국제공항에서는 거의 2~30초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비행기에 의한 교통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서울과 인구가 비슷한 시카고 비행장 대합실만 하더라도 서울역의 7~8배 크기에 마치 남대문 시장 같이 여객이 드나들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비행기를 이용한 교통이 격증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시카고를 거쳐 미국 명승지의 하나로 꼽히는 위스콘신주 남쪽에 위치한 어퍼딜 이란 곳을 내 동생의 안내로 관광을 겸하여 방문했다. 경작하지 않으면 도리어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는다는 광활한 토지,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찬 비옥한 땅, 나무잎이 쌓이고 섞어서 흘러 내리는 시커먼 강물, 그곳에 물러든 벌떼같은 수많은 차너무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꿈같고 부럽기만 하다.

이런곳을 거쳐 12일에 나는 뉴욕에 도착했다. 10년 전에 이곳에 있는 콜럼비아 대학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도서관인 회의에 한달동안 참석한 바 있는 나는 그리 생소한 곳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1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쉽게 눈에 띄었다. 아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큰 빌딩은 안 생겼어도 5~80층 건물이 수십개나 건축되었다. 지금 현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약간 큰, 그야말로 세계 제일인 건물이 한참 건축중이란다.

세계의 경제 중심지인 이곳은 과연 분주하고 바쁜 곳인 동시에 맨 아래로부터 맨 위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렘의 빈민굴에서부터 부로오드웨이를 거쳐 월 스트리트를 보면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를 누누나가 느낀다.

판스가 보일까 말까하는 정도의 초미기가 있는 반면 멋대로 기른 수염에 누더기 옷을 걸친 히피족, 실크햇

을 쓰고 다니는 보수적인 신사가 있는가 하면 거의 반나체로 다니는 초자연주의의파 등등 각양 각색이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흑인 문제로 인한 미국 내부의 문제는 도처에서 심각하다. 그러나 하렘과 같은 흑인 빈민굴을 가진 뉴욕이지만, 다른 지역 보다는 비교적 평온한 것이 뉴욕이다. 그것은 뉴욕주 지사가 흑인에 대한 정책을 잘하기 때문이란단다. 그러나 그들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닌 모양이다. 거의 산아를 제한하지 않는 관계로, 그로인한 가족수의 격증, 교육수준의 저하, 빈곤한 가정경제의 초래 등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활기있게 약동하고 있다. 거미줄 같은 고속도로, 바쁘게 질주하는 벌떼같은 차, 비옥한 넓은 땅, 풍부한 자연자원, 거기에 부지런한 국민성…… 이런 것은 내부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미국이긴 하지만 한없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다.

마치 내가 뉴욕을 떠나 런던으로 가는 날 아침 월세제를 처음으로 답사하고 돌아온 아폴로 11호 우주인 암스트롱을 위시한 세 우주인이 세균검사에서 풀려나와 뉴욕에서의 환영 행진이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의 하나인 뉴욕시립도서관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날 예정이었으므로 그곳에 가 보았다. 리무진에 탄 그들은 2층 3층의 경호를 받으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관계로 오래는 못 모았으나 그들을 환영하는 수백만 미국 시민은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그들은 역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도처에서 그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위대한 국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로 보였다.

미국의 동부와 서부와의 사이에 3시간이나 차이가 있을 정도로 광막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 국력을 든든하게 만든 첫 원인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러한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손바닥만한 좁은 땅에서 나누어 먹을것도 없는 것을 서로 빼앗노라고 야단 법석인 것을 볼 때 우리 조상들은 왜 좀 더 넓은 땅을 차지 못했나 하는 울분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

10년만에 보는 미국은 그칠줄 모르는 발전과 야욕이 넘치는 미국으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내년 봄이면 450명이나 태우는 잠보 젯트기인 보잉 747이 뜰 수 있게 하기 위한 비행장 확장 공사가 한참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더 좁아지게 된다. 앞으로 10년후에는 더 얼마나 세계가 가까워지고 좁아질 것인가를 생각 하면서 전등불이 휘황한 뉴욕의 밤을 떠나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BOAC로 뉴욕을 떠나 런던으로 출발한 것은 13일 밤 11시였다. (계속)